

3 >> 자율운영제 오늘과 내일



5 >> 신축기숙사 설립 관련 간담회



학사다이어리 - 예비 졸업 사정 시행 안내

대상 :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 대상자
 예비 졸업 사정 기간 : 2014.3.31(월)~2014.4.4(금)
 졸업 대상자 확인 기간 : 2014.4.2(수)~2014.4.6(일)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졸업/전공] -> [졸업정보조회] '수강내역포함 졸업진단표 생성' -> '졸업진단표 보기'를 클릭

해외파견 교비 '0원' 외국어대 타격 심해

국제교류처 대규모 예산 삭감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국제】국제교류처의 부서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전공·어학연수 등 해외파견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될 전망이다. 국제교류처는 올해 각종 해외파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비예산이 '0원'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국제교류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교환학생의 지원 또한 어려워진다. 영어권 또는 유럽어권 교환학생의 경우 1:1 교환학생 교류가 어려워 자매교의 학비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이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졌다.

국제교류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에 유치한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예산 또한 줄어들었다. 국제교류처 김혜단 계장은 "이미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금만 받은 상태"라며 "외국인 학생을 확대 유치해 재원을 확보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시킬 물꼬조차 없는 상황에서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현행' 유지 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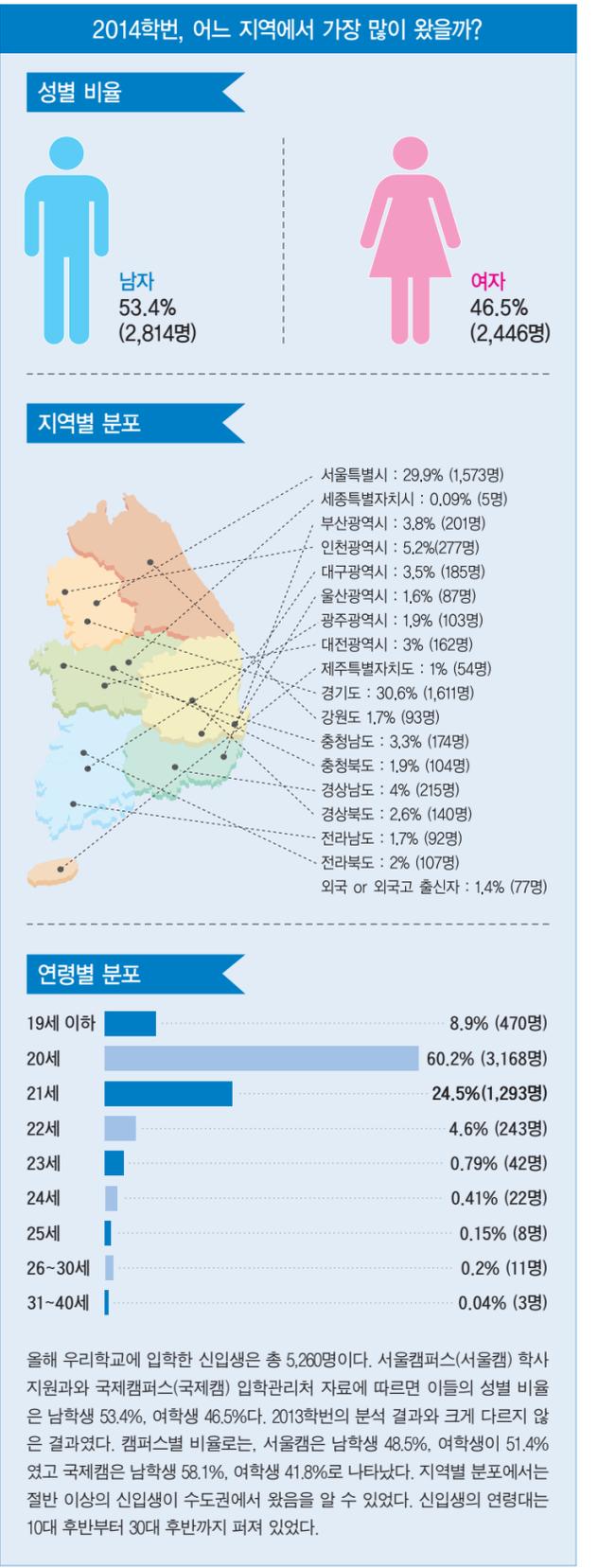
문제는 예산뿐만이 아니다. 자매대학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원상복귀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제교류처 지성환 직원은 "이번 예산삭감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자매대학교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후 교류를 하는 대학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공연수는 ACE(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비를 통해 3~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까지 각 학교로부터 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교류처는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0%의 규모라고 밝혔다. 교환학생은 1:1교환이 가능한, 추가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예정이다. 김 계장은 "앞으로 자매대학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며 "더불어 교육부 특성화사업 국제화부분에 국고유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연수 지원 취소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외국어대학(외대)이다. 외대의 경우 전공이 언어별로 구성돼 전공연수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외대 학생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외전공연수프로그램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외대 행정실 측은 난색을 표했다. 그동안 해외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현재까지 국제교류처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외대가 단과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해외파견 사업은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실시하는 영어권 연수 지원뿐이다. 외대 김철형 행정실장은 "외대가 수도권에 있는 타대학의 어문 계열에 비해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아온 건 사실"이라며 "학교 전체의 해외파견 지원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는 외대만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국제교류처는 해당예산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우리신문은 해당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Newsmaker

1인 미디어 운영하는 강바름(언론정보학 2011) 양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마주한다. 특히 직접 만나지 않아도 SNS를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평소에도 서로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정작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강바름의 아는 사람 얘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강바름(언론정보학 2011) 양은 의미 있는 '실용' 중이다. 말 그대로 뉴스를 만들고 있다. 길가다 만나거나 밥 먹다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을 매일 한 명씩 인터뷰해서 사진과 기사를 올린다. 이 인터뷰는 이제 제법 화제가 돼, 강 양의 지인들은 그에게 "내 이야기는 언제 실어줄 것이냐"고 물어올 정도라고 한다. 작은 사진 수업시간 주변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기록하라는 과제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수업 교수가 "사진 외에 1인 미디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지나가듯 했던 말을 듣고 강 양은 '기왕하는 것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게 됐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응해줬다.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시대에서 제가 대신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맞았던 셈이다. 이런 활동은 그동안 강 양이 해왔던 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희망, 스피치토론동아리 이감 등을 해온 그는 스스로를 '이야기꾼'이라고 말한다.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새로운 소식을 보면 말하고 싶어서 무척 설레요."

이 인터뷰는 이제 제법 화제가 돼, 강 양의 지인들은 그에게 "내 이야기는 언제 실어줄 것이냐"고 물어올 정도라고 한다. 작은 사진 수업시간 주변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기록하라는 과제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수업 교수가 "사진 외에 1인 미디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지나가듯 했던 말을 듣고 강 양은 '기왕하는 것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먹게 됐다.

"사람들을 만나 기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1인 미디어 시작해"

이 과정에서 강 양만의 철학이 있다.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묘사하는 셈이잖아요. 때문에 사진도 글도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만 써요. 그 사람의 좋은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서 모두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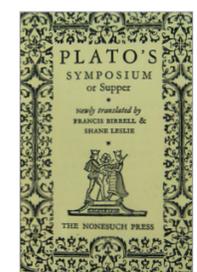
특히 1,100명의 친구가 있는 페이스북 '해비유저'인 강 양은 '좋아요'를 끌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훌륭한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홍보대사 희망 7기가 끝나고 1년 동안 쌓아왔던 인적네트워크가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쉬웠다"며 "이런 사람들을 만나 기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으나, 사진을 찍는 것을 부끄러워

'에로스' 라는 틴, 플라톤 《향연》

휴머니티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㉔
민승기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향연》은 에로스가 온전히 이야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너무 어려 잔치 자리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는 아폴로도로스. 그러나 잔치 자리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며 아폴로도로스

또한 그가 말해준 것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직접성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지혜와 사랑인 철학은 정작 자신이기도 한 에로스



그러나 《향연》은 에로스가 온전히 이야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해 명확히 알지 못한다. '사랑 말고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라는 이방인 여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소크라테스의 투명한 지식에 틴을 내는 '비-지식', '무의식적 지식' (라캉)은 디오티마의 신화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서술자들의 이중 결핍은 텍스트가 봉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틴들로 변형돼 예기치 않게 출몰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꼭질(이야

기의 중지), (에로스의) 집없음,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반인반수 실레노스, 신화적 모호성, 혼돈을 초래하는 알키비아데스의 침입, '아무 것도 아닌 자' (nothing), 소크라테스 등은 모두 에로스라 불리는 공백들의 현현이다. 에로스와 거리를 두고 그를 찬미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에로스의 광기와 열정에 사로잡혀 '에로스의 이야기들에 두드러져 맛과 살무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는 온라인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이제 모바일 페이지로 따로 접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하는 단말기 사이즈에 맞춘 화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 'digest' 로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 소셜 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Lion Annual Fund

慶熙의 **지력**

대외협력처 02) 963-4874~6 / 031) 201-3190~1

시선

사설 비현실적인 자율운영예산 추가삭감 논의

충격적인 삭감폭의 2014학년도 1차 예산안이 편성된 지도 이제 4주가 흘렀다. 많은 구성원이 1차 예산안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대학 측의 최종 예산안 발표를 기다리며 주목하고 있다. 1차 예산안 발표 직후에 열렸던 합동교무위원회에서 대학 측이 해명했던 바, '1차 예산안이 올해의 100% 편성 금액이 아니라'는 것'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환언하자면 많은 구성원이 1차 예산안 대비 늘어난 예산편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본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당초의 해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예산안 논의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난 28일부로 본 예산 잠정안이 도출되어 이제 총장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잠정안에 대한 우리신문의 다각적인 질문들에 대해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이다. 재정예산원을 비롯한 관련부서들 역시 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피력할

다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단편적인 소식들은 지속가능성이 배제된, 그래서 구성원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들 뿐이다. 가령 자율운영예산 삭감과 관련한 소식이 그렇다. 남순건 미래정책원장은 우리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자율운영 예산의 삭감분을 타 부서에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운영 예산은 이미 지난 해 대비 상당부분 감축된 상태고, 이 감축된 예산안은 학생 구성원과의 접점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구성원의 불만이 팽배한 이런 때에 자율운영예산 삭감의 이유나 규모조차 밝히지 않고 자율운영단위의 예산을 재차 삭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모습이다.

그동안 이런 밀실행정의 결과는 구성원 간 갈등의 폭발로 이어져 왔다. 위기 돌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 간의 단결을 저해하고 상호 간의 불신만 키워왔을 뿐이다. 얼마 전 총장 명의의 사과 메일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도 없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랫돌 빼서윗돌 괴겠다는 발상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학본부는 올 한 해 수입을 정확하게 구성원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원의 협조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교비회계에 따르면 지난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총수입은 4,270억 원, 2013학년도 총수입은 4,39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4학년도 총수입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 극소수의 예산담당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구성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큰 틀에서의 위기감만 공유하고 있을 뿐, 올 한 해 대학이 벌어들이 총수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와 고정비 등과 같은 고정소요 예산을 제외한 순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난 해 대비 얼마나 줄어든 것인지 등을 밝히지도 않은 채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구성원이 여기에 기꺼이 동의할 것인가.

한 해 총수입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은 일선 부서들의 1년 계획 구상에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대학주보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예산 탓에 4월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올 한 해 신문을 몇 차례나 발행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물며 많은 구성원을 긴밀히 상대해야 하는 일선 부서의 고충은 뻔하다.

개혁은 그 개혁의 당위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같은 사전작업 없이 '대학의 발전'이라는 구호하에 일방향적으로 강요되는 모든 정책은 구성원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이란 구성원이 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측이 먼저 그 토대를 제공해야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에 대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진정한 '논의'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전공연수예산 0원 준비하던 학생들 '황당'

취재수첩

김민정 (기자)



기자도 외국어대학 학생으로서 궁금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올해 해외전공연수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이다. 국제교류처 취재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줄 알았다. 예를 들어 전공연수 대신 특별교원학생을 지원하기로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 중요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제교류처 관계자를 만나고 해외과건을 위한 교비예산이 아예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위 질문은 무의미해졌다.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학교에선 국제교류의 특정 사업이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국제화' 그 자체가 뒷전이 돼 버린 것이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에서 우리학교는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가 10위인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국제화는 우리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지표가 진정한 국제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국제화 관련 지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왔다는 것은 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우리학교에선 '국제화' 그 자체가 뒷전이 돼 버린 것이다

기자가 소속된 학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학년 위주로 진행되는 전공연수는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유학경험이 없거나 언어를 처음 접해본 학생은 전공연수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전공연수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학과의 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대규모의 예산 삭감으로 일반교원학생을 제외한 해외과건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배들의 조언으로 전공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신입생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물론, 우리학교가 타대학에 비해서 해외과건 지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취재에서도 우리학교의 해외과건 지원이 과도한 감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이 취재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예산을 지난해 대비 0%를, 일반적으로 통보하듯 배정했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적정규모로 축소할 것도 아닐뿐더러 아무런 차선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을 외부로 파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매대학과의 국제교류가 대폭 줄어들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교류처는 해외박람회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학생들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와달라고 하겠냐는 것이다. 대학본부가 통보식으로 학생지원에 대한 예산을 끊어버린 것처럼 일방적 의사전달이 국제교류처와 자매대학 간에도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든다.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세시봉

이정우 (보도팀장)



지금 이 칼럼이 실리는 '세시봉'은 세상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자는 지금 이 글을 쓰며 어떤 봉우리에 올라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사실, 그 해답은 간단하다. 누구나 스스로가 살아온 삶이 있고 그 삶에 따라 자신만의 봉우리를 쌓아간다. 기자 또한 마찬가지다. 고작 20여년의 세월로 본인보다 더 오래 산 이들의 봉우리를 험사리 넘기는 봉우리를 쌓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기자 주변에 있는 이들만큼의 봉우리는 쌓았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조금이나마 겪어본 기자 생활 덕에 그나마 다른 봉우리보다 쥐꼬리만큼 더 우리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단지 그뿐이다.

그렇게 봉우리를 세우고 올라가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다르다. 누군가가 이렇다고 설명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서로 보는 것이 다르지만 보는 각도와 시야가 다를 뿐, 모범답안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의 쓴맛을 보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서로가 각자의 봉우리에서 본 경치에 대해 누가 더 옳은지 다툰다. 또는 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하지만 왜 높이 올라가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높게 있기 때문에 올라갈 뿐이다. 봉우리에서 주변을 살펴보려는 생각조차 없는 이들이 갖 봉우리를 쌓기 시작하는 대학에서도 넘쳐난다는 점은 슬플 따름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학을 다니는 것일까? 어차피 세상을 먼저 접하는 것이라면 대학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저 세상으로 나가기 전의 완충제일 뿐인 것일까? 원래 대학은 그런 역할이 아니

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봉우리에서 본 경치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다른 경치를 서로 조합하고 맞춰야만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줘야 하는 곳이다. 단지 기업화된 오늘날의 대학들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있을 뿐이다.

사실이 길었지만, 결국 기자가 지금 던지고 싶은 의문은 단 하나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바로 이 경희대는 대학 자체의 온전한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본인만의 봉우리를 세우고, 스스로가 이뤄낸 경치를 감상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바라보는 경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학교가 직접 그 이치를 체현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왜 대학을 다니는 것일까? 대학은 학생들에게 본인만의 '봉우리'를 세우고 더 넓은 시야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

편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학교는 이와 같은 가치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후마니타스 정신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서로라도 기자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한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으리라.

누군가의 허물을 논하고 잘못을 질타하는 그런 삶이 아닌,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기자는 다시금 봉우리를 쌓는다. 우리는 아직 학생이다. 길은 열려 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즐겁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인성을 갖춘 '봉우리'를 쌓고 주변을 살펴볼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적어도 기자는 타인을 신경쓰며 스스로의 속만 썩히는 삶보다는 느긋하게 주위를 돌볼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싶다. 군 입대를 앞둔 기자의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줄지 바라며 글을 마친다.



배려, '축제'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와글와글 경희

윤초임 (기자)



지난 25일 DCinside 경희대 갤러리에는 '푸른솔 고시생을 욕하고 난리났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진행된 '새내기 울동제' 뒤풀이를 위해 경제학과 학생들이 푸른솔 학생식당에 모였고, 푸른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고성방가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적혀 있었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술게 임 노래와 FM 소리가 기숙사까지 들려 시끄러웠다', '진짜 오늘 오랜만에 살기

를 편 욕을 들었다. 열람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도가 지나치다'라며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고 일반 학생 역시 '그냥 음식점 한 곳을 예약하면 되지,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슨 죄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비난의 글을 접한 경제학과 학생들은 서둘러 자리를 옮겼고 다음날 푸른솔 식당 옆에는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말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나'만 즐거워 서야 되겠는가. 벚꽃과 본관논이의 계절을 앞두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자율운영제 개선 필요성 지적, 구성원 의견 수렴할 때

우리학교 자율운영제가 시행 5년을 맞았다. 우리신문은 단과대학 운영 책임자인 학장들과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과대학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율운영제의 현황에 대해 파악해본다.

실무자가 인식하는 자율운영제

김윤철 기자 kyceellos@khu.ac.kr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신문이 단과대학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22개 단과대학 중 15개 단과대학의 행정실장이 응답했다.

이 중 '자율운영제는 우리대학 현실에 맞지 않으니 예전 대학본부 중심의 중앙관리식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4명이 '그렇다'고 답변했고, 6명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율운영제 존치에 보다 많은 실무진이 긍정했지만, 대학본부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자율운영제에 대한 회의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율운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다른 문항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율운영제를 위한 단과대학과 본부와의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나'라는 항목에 9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2009년 자율운영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초기 정착을 위해 존재했던 '자율운영지원센터' 폐지 이후 부총장 행정실, 미래정책원으로 담당 업무가 이관됐지만 자율운영의 지원범위, 담당자가 불명확해 구성원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 행정실장은 "자율운영제를 실시하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교육 및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대학본부 관재팀에서 기자재 구입 등의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율운영제 도입 후 업무과중 현상 증가

이 같은 단과대학과 본부와의 소통부재는 결국 단과대학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설문조사에서 '자율운영제 이후 행정실 업무가 과중됐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8명(53.3%),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명(26.6%)로 나타나 9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 B 행정실장은 "자율운영제를 업무 수월성이 아닌 업무 이관에만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자율운영 시행 전·후에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운영제 실무자 설문 조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자율권	자율운영제 이후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1	4	8	2	15
	자율운영제 이후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5	6	4	15
	자율운영제 이후 교원 채용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1	3	4	6	1	15
	자율운영제 이후 직원 채용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2	7	2	3	1	15
	자율운영제 이후 직원 전보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2	4	3	5		14
특성화 부문	자율운영제 이후 자체 발전전략을 비롯한 정책기획에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1	5	6	3	15
	자율운영제가 단과대학(대학원)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4	4	6	1	15
본부 지원 부문	자율운영제를 위한 본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5	6	4		15
	자율운영제를 위한 본부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4	6	4	1	15
	자율운영제를 위한 단과대학(대학원)과 본부와의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9	4	2		15
기타	자율운영제 이후 행정실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3	8	4	15
	자율운영제는 우리대학 현실에 맞지 않으니 예전 중앙 관리식 운영으로 회귀해야 한다		6	5	4		15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학교의 행정인력은 순차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결국 업무부담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에 이관된 업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본부 차원의 사업시행이 더 효율적인 경우 다시 본부가 담당하는 등 업무 재배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운영제가 주된 목적인 자율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율운영제 이후 직원 전보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6명인 40%가 긍정적인 답변을, 5명인 33.3%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자율운영제 이후 직원 채용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2명, '그렇지 않다' 7명이 답변해 답변자의 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 3명,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명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답변자는 26.6%에 불과했다.

이렇게 누적된 불만은 미래정책원에서 발표한 자율운영 개선 추진 계획(안)에도 반영되었다. 미래정책원 조직개편 후 기획예산팀에서 자율운영 및 예산관련 업무를 통합해 명확한 지원 부서를 만들고 상시적 업무조정과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C 행정실장은 "기존에 지적됐던 자율운영제의 문제점이 대부분 계획안

에 반영된 편이지만, 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인 업무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자율운영제 이후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8명이 '그렇다', 2명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내었고, '자율운영제 이후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명이 '그렇다', 4명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내며 66.6%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현행 자율운영제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 높아

하지만 이 역시 한정된 예산에서의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고정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각 단과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단과대학 목적기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없다.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 행정실장은 "자율예산 편성액이 많지 않다"며 "고정비를 제외하면 제도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가용액이 많지 않다"고 밝혔고 E 행정실장은

"등록금, 재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며 "등록금이 낮고 소규모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예산 운용이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자율운영제에 대해 실무진의 평가 역시 저조한 가운데 구성원 사이에서는 자율운영제의 존치 여부에 대한 회의도 나온다. 자율운영제에 대해 F 행정실장은 "중앙관리제로 환원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행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단과대학을 믿고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한 교원은 "자율운영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수차례의 학과장들 요구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다"며 학교 차원에서의 자율운영제를 재정비하는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도 행·재정 계획안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논의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운영제'는 학교의 전체적인 발전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학교운영의 큰 틀이다. 이미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은 일선 실무진의 평가와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자율운영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 단과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시점이다.

연재순서
 [1]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어제와 오늘
 [2]해외취재 - 학부별 자율성 높은 니혼대
 [3]국내 대학 자율운영제 현황
 [4]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미래
 1.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율'과 '책임'
 2. 자율운영제의 미래를 모색한다



'자율운영제'는 학교의 전체 발전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운영의 큰 틀이다. 이미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은 현장 실무진의 평가와 큰 차이가 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2014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은 해외 유수대학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강의와 다양한 교과의 특별과정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기간 2014. 06. 30 ~ 2014. 07. 24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5개 강의 (GC 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4. 03. 24 ~ 2014. 04. 30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4월30일까지 조기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 참조)
- 문의 미래문명원 Tel : 02-961-0995 E-mail : summer@khu.ac.kr 홈페이지 : http://gc.khu.ac.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hugc



보도



이날 열린 토론회는 세계화, 교양교육, 대학평가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학평가, 대학의 기업화 낳았다”

(서보영 시카고대학 교수)

미래 고등교육 포럼 개최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고등교육포럼이 '20세기 인문학의 대학개혁론과 현대 대학의 위기'라는 주제로 지난 25일 청운관 B117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 교수는 “대학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개혁적 논의도 결국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며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인류에 대한 약속’, 즉 진리를 추구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런 그런 고백과 약속이 대학을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서 교수는 더욱 각 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소속 구성원이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을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 교수의 강연내용에 연장선으로 자문에 종속된 현재 대학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두고 패널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 시각차와 대학평가에 대한 입장차가 패널 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한구 교수는 “인류에 대한 사유는 국가를 넘어 세계 속에서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질의했고, 서 교수는 “세계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기업자본주의 시대의 맹점과 모순 등을 철저히 규명할 때 교양 있는 인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포럼은 결국 그동안 대학이 깊이 논의해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것에 고등교육의 미래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재학생 12명 ‘경희안전지킴이’ 출범 안전점검·금연·한줄서기 캠페인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국제】 지난 7일 출범한 ‘경희안전지킴이’ (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이 직접 학내 안전사고를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지원처(학생처)가 추진한 사업이다.

재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의 주된 업무는 안전에 취약한 시간 및 공간을 점검하고, 학생 자치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두 세명이 조를 이뤄 활동한다.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동아리방을 돌면서 음주나 숙박에 대해 주의를 주고 중앙도서관 뒤편 산책로를 순찰한다.



학생지원처, 국제

새울제, 15개 학과 참여 경제학과 뒤풀이 고성방가 ‘빈축’

김주환 기자 kjh93@khu.ac.kr

【서울】 새내기 울동제(새울제)가 지난 25일 저녁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새울제에는 총 15개 학과가 참여했고, 14학년 신입생들이 선배들과 함께 준비한 울동을 선보였다.

한편 새울제 이후 경제학과 학생들이 푸른솔문화관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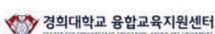
정호민 객원기자 speed8756@khu.ac.kr

고성방가를 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제학과 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연구와 학업 공간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음성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장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책임자가 끝까지 남아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2014-1학기 융합 Clippers 모집안내

경희대학교 융합교육지원센터는 융합교육을 확산시키고, 공유하며, 우리만의 융합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이 넘치는 경희융합 Clippers를 모집 합니다

- 1. 선발인원: 서울 0명 / 국제 0명
2.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가. 모집일정: 2014년 04월 1일 ~ 12일
나. 신청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후 융합교육지원센터(국제) 직접 방문 제출 or 이메일 접수(conedu@khu.ac.kr)
3. 지원 대상 및 전형방법
가. 지원대상: 경희대 모든 재학생(후학선 대학원생 제외)
나.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2차) 시행
다.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 예정
4. 활동기간: 2014-1학기(04월 ~ 08월)
5. 활동사항
가. 국내외 융합교육 정보수집
나. 융합교육 뉴스클리핑 편집 및 발간
다. 융합교육지원센터 뉴스레터 제작
라. 월 2회 회의 참석(국제)
6. 지원혜택
가. Clippers 활동지원금 지급
나. 임명장 및 인준서 발급
7. 문의사항
가. 융합교육지원센터 (중앙도서관 3층 301호 ☎ 031-201-2790-1)
나. 홈페이지: http://conedu.khu.ac.kr/
Facebook: https://twitter.com/conedu_khu
Twitter : https://facebook.com/ConEduKhu



2014학년도 1학기 본전공(1전공) 선택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본전공(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단위 입학생 중 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본전공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기간 : 2014. 4. 7(월) ~ 4. 11(금)
2. 신청대상
가. 학부(과)단위 입학생 중 세부 전공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관광학부(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생활과학부
-예외학부: 전공배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및 전공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호텔관광대학(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3. 신청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전공신청> [전공신청/포기] 클릭
나. 제1전공권을 선택하여 소속학부내 희망하는 전공 선택 후 저장
다. 제1전공에 해당하는 트랙 신청 가능(2개 트랙 범위)
※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졸업 시 결과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본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 할 수 없음
나.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금학기 전공 선택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전공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됨(다, 다전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전공신청을 해야함)

※ 본전공 신청 관련 세부 문의 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교무처장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 1.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kh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내역, 연구업적 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의계획서 등이 가능하며, 학생의 인터넷 휴 복학 신청, 예비군입상고, 시간외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장학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 교내외 납입내역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메일 인증 서비스
이메일 인증 서비스는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용메일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및 IOS(애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로 검색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시스템 서비스(웹/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khu.ac.kr)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개설 학기 수강신청, 학과별/과목별 등록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기에서도 수강신청 등록/신청 관련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으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서비스
학생과 교직원 모두 k@khu.ac.kr의 형태로 학교 메일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https://mail.khu.ac.kr)를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알찬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와 같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위 취득/이메일 계정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희대인 이메일 계정 및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홈페이지 알림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사내에서 계정을 발급받아 개인별-개인 홈페이지를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하는 수강생에게 메일과 문자를 단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7. 수강생에게 메일-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인터넷 증명 발급
인터넷을 통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직원수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직원임용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증명발급기

※ 자세한 사항은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s.khu.ac.kr)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E-mail (i@khu.ac.kr) 또는 IT 콜센터(서울 02-961-0304(052), 국제 031-201-3171-3)로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협의회, “기숙사 수용인원 절반으로 축소 해달라” 학교 · 학생, “축소하면 학생들 수용할 수나 있나?”

공공기숙사 건축 관련 간담회

진행 : 김주환 · 권은 기자
정리 : 윤초임 기자

대학생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대규모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숙사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는 지역주민이 현재 서울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에 건립예정인 행복기숙사를 반대해 논란이 계속되고있다. 우리신문은 학교와 학생, 기숙사건립 반대주민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살펴 보고자 했다. 간담회에는 생활관 김동준 행정계장,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 서울캠 총학생회 박이랑(사학 2008) 회장, 지역발전협의회 김광우 사무총장, 회기동 53년 거주주민 A씨가 참석했다.



생활관 김동준 행정계장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



총학 박이랑 회장



지역발전협의회 김광우 사무총장

Q 기숙사 신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혀 달라.

김동준 계장 : 현재 서울캠퍼스 재학생 18,560명 가운데 기숙사 수용인원은 1,014명에 불과하다. 수용률이 5.46%로 무척 저조하다. 학생들의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던 중,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는 2012년 행복 기숙사 사업에 선정됐다. 덕분에 현재 회기동·이문동에 위치한 행복 기숙사에 총 124명이 입주한 상태고, 앞으로 926명을 수용할 신축기숙사 역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박이랑 회장 : 기숙사의 수용인원이 5%를 겨우 넘는 상황 속에서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통학하고 있다. 자취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숙사 신축이 시급하다. 기숙사 설립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절대 아니며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광우 사무총장 :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대학생의 편안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SPACE21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 신축된다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됐는데 당시 주민들은 학생들을 위해 자취방 리모델링을 끝낸 상태였다. 많은 공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축 기숙사 설립 소식이 들리자 난감했다. 물론 기숙사 설립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박이랑 회장 : 김광우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용자를 내면서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어 초과

공급이 대학생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리모델링한 건물에 사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 봤지만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우리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통계, 경인 지역의 통학 비율 등 구체적인 근거를 원한다. 학생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Q 지역발전협의회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광우 사무총장 : 주민들은 신축 기숙사로 인해 약 1,000실의 공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신축 기숙사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절반을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500명의 학생들은 주민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이후 기숙사로 인한 공실이 회복되는 연착륙 기간을 거치면, 다시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했던 공간을 기숙사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김동준 계장 : 신축 기숙사로 입주를 원하는 경인지역학생은 약 4,000명을 훨씬 넘는다. 2,000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2,000명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단 500명만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다.

장석원 팀장 : 절반으로 줄였으면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기숙사에 입주할지, 자취를 선택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기숙사 수용인원을 줄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착한 기숙사’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학교 측에서도 홍보를 도울 의향이 있다.

Q 김 사무총장이 말한 연착륙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인가?

김광우 사무총장 : 고려대에서 신축기

숙사로 인한 공실을 회복하는데 약 3년여 걸렸다. 하지만 그때보다 임대시장 상황이 안 좋고, 기숙사규모도 다르다. 고려대 사례는 예일 뿐이다.

Q 신축기숙사 대체방안으로 ‘착한 자취방’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광우 사무총장 : 분명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숙사가 더 경쟁력을 지니는 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를 낮춘 ‘착한 자취방’이다. 이번 1학기까지는 시범 운영되며 2학기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기숙사에 떨어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고 가격은 18만 원에서 30만 원(2인 1실)이다. 상황은 가변적이기에 마련된 ‘착한 자취방’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요 조사가 끝나면 즉시 주민들이 2인 1실로 매칭할 예정이다. 단 주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너무 많은 학생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이랑 회장 : 김광우 사무총장의 의견은 기존에 혼자 사는 방에 이층 침대를 들인 뒤 두 명이서 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열악한 시설’이 자취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적었던 요인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도 약 500명의 학생들에게 18만 원의 가격으로 임대하겠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약속인가?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김광우 사무총장 : 착한 자취방의 시설이 열악해서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주민 모두가 염전해서 내놓는다. 그 문제는 직접 환경을 보고 판단해

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임대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500명의 학생들에게 18만 원의 가격의 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1,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받았던 투자비용은 500명으로 수용 인원이 줄면서 남지 않나. 그 돈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준다면 기숙사와 동일한 가격에 좋은 방을 제공할 것이다.

박이랑 회장 : 말도 안 되는 요구다.

Q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장석원 팀장 : 김광우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주민과 지역의 범위가 매우 불특정하다. 통상적 범위로서 회기동·이문동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1,300명 주민의 대표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보고 싶다.

김광우 사무총장 : 지금 대표성을 의심하는 것인가?

이날 간담회는 결국 신축기숙사에 대해 지역발전협의회가 500명으로 수용인원을 줄여달라는 요구 외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우리학교는 다음 달 중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요구한 공청회를 진행해, 신축기숙사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차후 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은 부분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총학생회 역시 신축기숙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문조사나 민원제기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준비 중인 상태다.

“ 신축기숙사로 입주 원하는 경인지역, 학생만 4000명 … 500명만 수용하라는 요구는 ‘역지’. 발전협이 제시한 ‘착한 자취방’, 현실성과 신빙성 떨어져 -생활관 김동준 행정계장

”

미디어센터 칼럼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청춘·영화·음악·경희의 역사·유물 등의 다양한 소재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필진의 ‘프리미엄 칼럼’은 웹 홈페이지 media.khu.ac.kr 또는 모바일페이지 media.khu.ac.kr/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진의 ‘이 거지같은 청춘’

미디어센터의 간판 칼럼니스트 최상진 교수는 국어국문학과와 큰 어른으로서, 제자들의 고민은 물론 연애사까지 두루 꿰뚫고 있다.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청춘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안승범의 ‘작은 영화로 본 큰 세상’

우리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연구원이자 문화공간 ‘탈리탈라’의 대표인 필자는 이외에도 ‘명함’이 많다. 시인이자 영화평론가로서 경희 구성원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가득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동희의 ‘Rock & 樂’

10대 때부터 밴드활동에 심취해 온, 락스 피릿의 소유자. 한 분야에 끊임없이 파고들어 웬만한 전문가 저리가라 하는 필자가 락의 음악성에 대한 연재를 하고있다.



김용운의 ‘중앙박물관 유물 산책’

우리학교 중앙박물관 직원인 필자는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유물의 가치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그의 글을 읽으며 유물 산책을 함께 떠나보시길.



남기원의 ‘숨은 역사를 찾아서’

경희기록관에서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 필자는, 빛바랜 자료 속에서 경희가 지나온 길을 더듬어 오늘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숨은 역사’ 속 경희의 이야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조은아의 ‘강의 일기’

피아니스트이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객원 교수인 필자는 그간 음악을 매개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 ‘경계넘기’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그 너머의 이해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의 강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미디어센터 칼럼 소개 및 각 칼럼니스트 소개 내용.

칼럼



이현호
홍익대 건축학 교수

※필자소개: 이현호 교수는 우리학교 SPACE21의 대표건축가로 키아즈머스를 공동설립했다. 현재 키아즈머스는 우리학교 SPACE21 등 교육시설과 주거공간, 그리고 다양한 상업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공간과 건축 ③

연재순서

1회: '시간'의 건축

2회: '시'가 있는 건축

3회: '도시'를 생각하는 건축

좋은 교육공간, 외부세계·새로운 지식에 열려야

이번 학기가 시작하기 몇 주 전,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모든 교수들이 학위 가운을 입고 졸업생 가족들과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온 우리학교의 교수님 한 분은 학위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서 계셨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수학하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다양한 학위 가운을 보아왔고 또 우리나라 대학들 역시 저마다 학위가운을 입고 졸업행사를 치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프랑스 대학의 학위가운은 어떤 형상인가 문득 궁금했다. 패션과 예술의 나라답게 뭔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 그 교수님께 물어보니, 예상 외로 다음과 같은 답변이 튀어 나왔다.

“68혁명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학위가운이나 학위모자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졸업식 같은 의식조차 안하고 있는 걸요.”

이 답변을 들으니, 아, 지난 세기에 엄청난 물질적 성장과 진보를 가져다 준 모더니즘의 이면에는 그 이전까지 내려오던 많은 전통의 단절이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유니폼은 특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행위에 걸맞는 마음자세와 의식(意識)을 불어넣어주는 기능을 한다. 흔히 '수트를 입으면 몸가짐이 단정해진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꽤 여러 곳에서 '유니폼'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회사의 사원들은 정장 혹은 세미정장 등으로 규정된 옷을 입고 출근한다. 법정에서는 법관이 법의 지엄함을 상징하는 법복을 입고 좌정하고(영국의 법관들은 흰 가발까지 쓴다), 사찰에서는 승복을 곁에 갖춰 입은 스님들이 경건한 종교적 세계로 불자들을 안내한다.

이러한 '유니폼' 혹은 복식들은 해당하는 특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성한, 경건함, 일체감, 추모의식 등과 같은 마음가짐은, 오늘날 사회가 생산과 효율로 점철된 시대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깃들여 있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학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정보를

습득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생산·전달하는 장소다. 하지만 대학은 그 이전에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고양된 시기를 보내는 의식(意識)적인 공간이자, 사회 속 수많은 가치의 보루로서 '지식과 양심의 전당'이라는 의미를 충만히 지니고 있는 다분히 의식(儀式)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대학 캠퍼스는 외부의 세계와 학문적인 의미로서 구분되는 공간이며, 그렇기에 외부와의 변별점이 되는 학문적 의식의 울타리는 충분히 높아야 한다. 그 울타리가 외부에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또 대학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참된 교육이란 '한 사람을 목수로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목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지식이란 이리이러한 것이다'라고 어떤 정형을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그 정형의 틀을 극복해내지 못한다. 때문에 지식 이전에 이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지식인을 양성하는 길이 된다.

이런 면에서 대학은, 경건하고 겸허한 학문의 공간임과 동시에 그 어떤 틀이나 제약도 만들어두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 좋은 교육공간으로서 캠퍼스는 외부세계와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개방성과 유동성을 함양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개방성과 유동성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문 융합교육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경로를 제시해주는 나침반을 담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견고한 공간이다. 대학은 변치 않을 진리를 탐구해가는 지적 탐험가들의 터전이다. 진리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일렁이는 세상의 파도에 손쉽게 휩쓸리는 것이어선 안 된다. 세상의 가치가 설령 엄격한 잣대를 잃고 이리저리 시대의 취향에 따라 흔들거릴 지라도, 대학은 선학이 쌓아올린 진리탐구의 토대 위에 오늘의 학문적 성취를 굳건히 세워가는 든든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대학 건축이란 무엇일까? 좋은 대학 건축이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대학의 성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건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유니폼처럼, 일상의 생활과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의식(意識)적인 면(Spiritual)과 의식(儀式)적인 면(Ritual)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의 양식을 구현하는 한편, 캠퍼스 안의 구성원과 외부의 구성원들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공공성을 지닌 공간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간과 세월을 이겨내는 견고한 건축으로 완성된 학문적 이상향으로서의 캠퍼스 건축이 진정한 좋은 캠퍼스 건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깊이 감동을 받은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다. 판테온은 B.C.27년 아그리파에 의해 그 원형이 세워졌지만 로마 대화재 때 소실된 후 A.D.120년 경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한 만신전(萬神殿)으로, 2,000년에 달하는 세월을 버텨내며 그 자리에서 인류에게 끝나지 않는 감동을 주고 있다. 판테온은 그 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건축물이다. 이 한 채의 건축물이 건축가에서부터 영화 제작자, 음악가와 예술가, 그리고 사랑하는 커플에게까지 거의 모든 방문자의 마음과 가슴을 흔들어 놓고 영감을 주었다는 것, 그것은 이 판테온이 시간을 이겨내는 지속가능성을 지닌 건물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세대와 세대를 지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보하고, 상상의 씨앗을 심고,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는 판테온의 이러한 점이야말로, 나는 대학의 건축이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성격이 아닌가 생각한다.

판테온은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왔다. 초기 로마의 제신(諸神)을 섬기는 공간이었던 판테온은 609년부터는 가톨릭 성당으로 활용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다시 가톨릭 성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가지 용도에 얽매이지 않은 이 용도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판테온이 2,000년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대학 건축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 하나의 용도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건축물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학의 건축물 역시 시간을 버티며 그 내부의 변화를 겪어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학의 건축은, 불과 30년도 못되어 재건축되곤 하는 보통의 건물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동시에 강하게 서있고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견고함은 구조적 견고함을 넘어 상징적이며 의식적인 견고함으로 확장되어 갖춰져야 하고, 동시에 많은 시간대의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도록 지어줘야 하며, 시간 속에서 퇴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임으면서 점점 더 기품을 갖춰가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신축건물 조감도

“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항구와 같은 역할, 그리고 미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좋은 캠퍼스 건축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교양리포트④
돈의 발명 : 조개에서 도토리까지

건전한 경제관, '화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조복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돈의 발명'이라는 과목은 배분이수에서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의 영역에 속한다. 고대문명 발생지에서 교환의 매개로 발생한 화폐가, 각각의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근하는 나는 많은 수의 임금 노동자들을 보고, 강의실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즉 임금 노동자가 되기를 원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목을 강의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귀가할 때까지 여러 차례 돈을 소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일 지갑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가져왔더라도 비어있는 상태라면 그날 하루는 매우 당혹스럽고 곤란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의 생활에서 화폐는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화폐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발견한다. 한 낭이란 단위가 동전 한 개인 것으로 오인한다거나, 현행 화폐 모양의 전단지나 쿠폰을 거리에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화폐 훼손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지폐에 적어놓은 당당함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는 화폐 자체의 역사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돈의 발명'이라는 과목은 배분이수에서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의 영역에 속한다. 고대문명 발생지에서 교환의 매개로 발생한 화폐가, 각각의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 강의의 주된 내용



우리는 생각보다 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다. 구체적으로는 문명의 발생 시기에 어떤 이유로 어떤 화폐가 만들어지고, 동양과 서양의 고대와 중세, 근대에는 어떠한 화폐를 사용했으며 그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화폐를 둘러싼 동서양의 에피소드나 화폐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현황과 특정 및 물가 등에 대해서 발표와 질의·토론을

병행함으로써 세계 주요 국가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전반적인 상황과 물가 및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축적하도록 한다.

동양과 서양의 화폐의 발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두 지역의 문화 발달 수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의 한이나 당과 같은 왕조나 서양의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구리로 만든 동전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반면 중국의 분원기나 중세의 유럽에서는 그

렇지 못하고 화폐는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사용했다. 그러나 역대 왕조들이 멸망할 때 정치적·군사적 원인 이외에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 소수계층에게 고도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곧 어떤 국가나 경제력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적당하게 배분돼 원활하게 유통될 때 그 나라가 경제적·문화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돈은 인류의 역사에서 때로는 어느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돈을 잘 사용하면 그 나라의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를 많이 획득하는 방법만을 학습하기에 앞서 화폐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 즉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화폐사에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시간 동안에 경제를 건설한 만큼, 화폐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본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졸업유예생이 늘고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졸업유예 ‘필수코스화’ 일자리 보장 못하는 정부·사회 책임

대학을 생각한다 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KHEI)
연구원

대학생의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졸업생 중 10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비율이 2009년 25.2%에서 2013년 34.1%로 5년 만에 8.9% 증가했으며, 연세대도 같은 기간 7.5%에서 20.6%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도 7.5%에서 14.8%로, 전남대는 4.8%에서 14.7%로 늘었다. 또한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소요 기간은 남자가 6년 4개월, 여자는 4년 5개월로 남자의 군 복무 기간 2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2학기를 더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학기간의 증가는 최근 들어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취업 문제나 개인 사정 등으로 졸업을 미루거나 늦추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인 듯 보인다. 이른바 졸업유예다. 얼마 전 한 구직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또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 1,116명 가운데 절반 이상(53%, 594명)

이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해 봤’거나 ‘앞으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졸업을 유예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 자체 규정을 강화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 학점 이수 없이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소액의 비용을 징수하던 대학들마저 최소 1과목 혹은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예전부터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던 대학들처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 규칙에 따르면 초과학기 수강등록자는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은 수십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불가피하게 졸업유예를 생각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 학점 당 등록금 기준을 계절학기 등록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학도 있고, 취업장려금으로 돌려줘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학도 있지만 이마저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근래 들어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늘려 사실상 졸업유예 학생을 줄이려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학사관리 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졸업유예 학생들의 급증

은 대학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를 조정하면서 재학생 충원을 및 취업률 비율을 낮추는 대신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교육비 환원율 등의 지표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졸업유예 학생이 많으면 재학생 수가 증가해 대학의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을 중시하던 이명박 정부 때는 졸업유예생이 보탬(?)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후자의 지표 비중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학벌, 스펙위주의 채용 풍토 여전

그러나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대학 평가에서 불리할 것 없을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학점 이수 요구나 비용 증액 등으로 졸업유예 희망 학생들을 밀어내고 있는 대학 당국의 처사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19세~29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일자리는 8만 개 정도(2.6%) 감소했다. 이들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추세였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학벌·스펙 위주의 채용 풍토 또한 여전하다. 이제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등 ‘취업 5대 스펙’이 아닌 봉사, 인턴, 수상경력이 추가된 ‘취업 8대 스펙’이 기본이라고 한다. 정부가 스펙 초월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한된 일자리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졸업유예 학생들의 증가 추세는 쉬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졸업유예생 증가는 대학생들 스스로가 원한대기보다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들이 대학에서 나오지 못하게 사실상 막고 있어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 어디도 졸업유예생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정부가 하루아침에 대안을 내놓을 수 없더라도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실태 파악이라도 나서 학생들이 느끼고 있을 정신적 또는 물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 역시 위축될 것 없이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참여마당

원웅웅
(체육학 2008)



‘국내 최고 체대’ 자존심 걸맞은 대처 해주기를

나는 ‘무식한’ 체대생이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체대) 학생이기도 하다. 체육대학은 우리학교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희대학교가 1949년 설립될 당시 국내 최초의 체육학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그 후 지금까지 한국체육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런 체대가, 온라인상에서 발각 뒤집혔다. 이를 지켜보며 개인적으로는 체대 내에서 자체적인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내 최고의 체대라는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나가기로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일자로 발행된 <대학주보> 기사에 실린 체대 학생회 측의 해명을 보고 필자는 할 말을 잃었다.

2008년, 필자가 입학할 당시에도 한 언론에 우리학교 체대의 군기 잡는 문화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고백하건데 부끄럽게도 새내기 시절, 나는 이런 악습들을 ‘필요악’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한다. 그때의 나는, 틀렸다.

‘전통’, ‘군기’, ‘기강’, ‘질서’ 모두 좋은 말이다.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위계 질서 즉 군기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군대가 아닌 대학에서 이러한 명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잘못된 것은,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 없다. 그런데 체대 학생회장은, <대학주보 제 1564호 (2014. 3. 24.) 3면>을 통해 ‘전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나 ‘까’ 용법이나 관동성명이 정말 존경심을 표하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십니까’에는 과연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학번이 올라갈수록 이런 용법을 쓰지 않는 것일까? 선배가 선배답게 행동하고, 후배를 이끌어 주면 존경심과 예의는 저절로 갖춰진다. 강요된 말투와 인사, 기계적 관동성명 대기는 결코 존경의 표시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기사 말미에 ‘구타 사건의 경우 새내기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체대 측의 변명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폭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뿐더러 도대체 새내기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은 뿐이다.

조직 내 협동심 역시 억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하고 활동할 때 생긴 공감대가 비로소 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한다. 하지만 여전히 체대 내 각 종 ‘행사’는 특히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뤄진다.

논란 이후 학내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학생회 차원에서 이뤄졌고, 체육대학 학장과 새내기들의 면담 등의 대처 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강도의 변화만 있을 뿐, 부조리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나 역시 조직 내 사회적 유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는 필요하며, 전통은 지켜나가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 다만,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학번이나 지위의 높음으로 타인을 억압하는 관습이 있다면 잘못된 ‘악습’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이야기될 수 없는 에로스는 이야기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틈, 에로스. 에로스를 온전한 하나(의 회복)로 설명하고자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는 그것의 불가능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제우스에 의해 거세돼 온전함을 상실한 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꺼안는 인간은 온전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겹침의 공간을 부여잡고 있을 뿐이다. 포옹은 반의 결핍을 메워 온전한 하나를 회복하기는커녕 두 반쪽 모두를 결핍시키는 겹침, ‘사이’를 생성해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반쪽이 하나로 통합될 수 없도록 하는 이중 결핍의 공간을 종족 번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포만감’으로 설명한다. 주판치즈의 말대로 포옹으로

인해 우연히 생겨난 ‘임여만족’이 “끌어안은 채 죽어가던 인간들을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디오티마의 에로스를 만난다. 포로스(방도)가 자고 있을 때 페니아(방도없음)가 그 옆에 눕는다. 방도와 방도없음의 포옹. 거기서 생겨나는, 둘 모두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는 중간자, 에로스. 지혜와 무지, 신과 인간, 풍요와 빈곤 ‘사이’ 에로스는 대립물이 일치하는 공간, 명명할 수 없는 틈으로 출몰한다.

대립적 사유 속에 자신의 거처를 갖지 못해 그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에로스는 이번에는 소크라테스 속에 있는 아갈마(보물)로 모습을 드러낸다. 알키비아데스가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맛바퀴 소유하고자 하는 지혜라는 보물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보물은 텅 빈 공간, 교환하거나 명명할 수 없는 간극,



라 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

《향연》은 사랑에 대한 사유가 이미 사랑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사유의 틈, 사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딸꾹질로서의 사랑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나 알키비아데스 모두를 거세하는 ‘사이’이다. 그것은 소크라테스 속에서 소크라테스를 넘어서는 임여, 소크라테스의 결핍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를 자신과도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틈이다. 《향연》은 사랑에 대한 사유가 이미 사랑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사유의 틈, 사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딸꾹질로서의 사랑인 것이다.

2014학년도 1학기 교수자 대상 강의컨설팅 안내

강의 모니터링은 빠른 시간에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강의 및 일반 강의 중 희망 강의에 한하여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에서는 "3가지 유형의 강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컨설팅 서비스 3가지 유형

- 1유형: 학습자요구조사
- 2유형: 학습자요구조사 + 강의촬영 + 교수역량진단
- 3유형: 학습자요구조사 + 강의촬영 + 교수역량진단 + 전문컨설팅

*신임교원은 강의 컨설팅 3유형이 의무사항이며, Teaching Fellow에 의해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 1) 컨설팅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문 연구원과 촬영 조교에 의해 이루어짐
- 2) 강의를 촬영한 교수님 개인에게만 송부되며 비밀이 보장됨
-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online@khu.ac.kr)로 신청
- 4)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 031-201-3195~7
윤진영 연구원(E-mail: online@khu.ac.kr)

경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포츠

‘사자군단’, 짜릿한 2점차 역전승

대학농구리그 홈 개막전
김유림 객원기자 csyang1617@naver.com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27일 우리학교 체육대학 농구장에서 펼쳐진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한양대와의 홈 개막전에서 88-86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경기 시작 직후, 배수용(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의 슈팅 골대를 맞고 뛴겨 나오자 최승욱(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이를 리바운드해 득점에 성공,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취 득점 이후 쉽게 수비가 무너져 한양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배수용 선수가 리바운드와 득점에서 고군분투했지만 농구부는 압도적인 플레이를 선보이지 못하고 23-22로 근소하게 앞서나가며 1쿼터를 마쳤다.

2쿼터, 우리학교는 초반부터 한양대에 쉽게 골밑 공격을 허용하며 주춤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의 파울을 유도하며 자유투를 얻어냈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한양대의 두터운 수비벽에

가로막혀 2쿼터 내내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3쿼터에는 한희원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며 전반전 뒤쳐졌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최창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배수용 선수도 기세를 올려 동점을 만들어냈다. 한희원 선수가 3점 슈트를 연속으로 두 번 성공시키며 58-51로 순식간에 앞서나갔다. 그러나 3쿼터 후반에만 한양대에 9점을 내리 허용, 한양대에 3점 뒤진 63-60으로 3쿼터를 마쳤다.

4쿼터에도 우리학교는 3분 동안 9골을 내주며 한양대에 끌려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무너졌던 공격이 되살아나며 상대를 71-74로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후, 우리학교는 두 번 이어진 자유투에서 2점을 뽑아내며 1점 차까지 추격했다. 양 팀의 속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농구부는 한양대에 3점슛과 자유투를 연이어 내주며 3점 뒤진 상황이 됐다.

그러나 과열된 경기로 인해 한양대가 계속 반칙을 범했고, 3쿼터까지만 해도 자유투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학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2번의 자유투

를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86-84로 앞서나갔다.

경기 종료를 8초 남기고 한양대가 동점골을 뽑아냈다. 앞선 데 뒤틀린 격으로 한양대 임형중 선수에게 자유투까지 허용하며 지난 ‘제30회 MBC배 수원시 전국대학농구대회’ 결승전에서 고려대에 게 당한 뼈아픈 1점 차 패배를 연상케 했다. 그러나 한양대는 득점에 실패했고, 이를 놓치지 않은 임형중 선수가 바로 리바운드했다. 이어 최창진 선수가 경기 종료 2초를 앞두고 속공에 성공하며 88-86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24일 열린 고려대와 대학농구리그 개막전에서 패배했다. 한양대와의 경기에서도 패배했다 라면 자칫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었으나 다행히 홈경기 개막전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해 ‘사자군단’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창진 선수는 “첫 상대로 만난 고려대한테 졌기 때문에, 그만큼 한양대전은 많은 준비를 했다”며 “완전히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다음 경기는 쉽게 풀어가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 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우리학교는 원광대에 15-17로 패했다.

핸드볼부, 원광대에 패배해 아쉬운 준우승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 준우승
박민혜 객원기자 fdhkhshf@naver.com

우리학교 핸드볼부가 지난 26일 서울 SK핸드볼전용경기장에서 펼쳐진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 원광대와 결승전에서 15-17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대학 최강자를 결정하는 결승전답게 초반부터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다. 팽팽한 흐름에서 우리학교는 먼저 득점했다. 오상환(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왼쪽 센터 9m라인에서 쏘아올린 슈팅이 원광대의 골대로 빨려들어가면서 선취점을 따낸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원광대도 동점골을 만회하며 승부는 원점이 됐다.

동점 상황에서 박희민(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왼쪽 센터와 오른쪽 센터를 넘나들며 골대와 6m 거리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려 득점에 성공, 다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원광대는 번번이 따라붙으며 1점차 승부가 계속됐다. 한 점차 싸움을 계속하다 전반 종료 2분 30초전, 원광대 이한솔 선수에게 점수를 내주며 5-7로 뒤진 채 전반을 종료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우리학교는 또다

시 원광대에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오상환 선수가 빠른 전개로 오른쪽 9m라인에서 골을 넣으며 상대를 무섭게 추격했다. 또한 박희민, 김준형(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차례로 점수를 올리며 1점 차까지 따라잡았다. 특히 원광대 최형근, 박영준 선수가 연달아 거친 플레이로 2분 퇴장을 당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원광대는 선수 퇴장 이후에 수비를 강화해 촘촘한 수비진영을 구성했다. 우리학교는 선블리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점을 허용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이후 기세가 떨어진 핸드볼부는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고 원광대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김다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썰러준 공을 받아 허준석(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속공을 전개해 골을 넣으면서 역전의 기회를 엿보았지만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우리학교는 최종 스코어 15-17로 안타깝게 패배해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번 시즌 첫 대회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신입생들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와 단단해진 조직력은 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FA컵, FC마르티스 완파



김승미 객원 기자 hiz_z@naver.com

우리학교 축구부가 지난 23일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는행 FA컵(이하 FA컵) 1라운드 서울FC마르티스(이하 마르티스)와의 경기에서 12-1로 대승을 거뒀다.

득점 행진은 고승범(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전반 8분, 백승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 받은 고승범 선수는 가볍게 골을 밀어넣으며 선취점을 기록했다. 이어 23분, 김정세(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추가하며 점수

차를 벌렸다. 전반 30분, 마르티스의 역습을 막는 상황에서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며 득점을 허용했지만 백승훈(스포츠지도학 14) 선수가 전반 종료를 앞두고 추가골을 기록하며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후반에도 득점행진은 계속됐다. 교체 투입된 이근철(스포츠지도학 14) 선수가 노마크 찬스에서 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축구부의 연이은 공세에 마르티스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로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했다. 수적 우위를 점한 축구부는 더욱 강하게 마르티스를 몰아붙였다. 백승훈 선수와 교체해 들어간 최동섭(스포츠지도학 12) 선수, 박인혁(스포츠지도학 14) 선수가 후반에만 각각 두 골을 성공시키며 득점행진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종료 직전, 수비수 이상하(스포츠지도학 14) 선수가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주의 스포츠
4월 1일 <2014 대학농구리그> 경희대 vs 건국대 오후 5시(건국대 충주캠퍼스)
4월 2일 <2014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경희대 vs 우석대 오후 2시 30분(군산 야구장)
4월 4일 <2014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경희대 vs 호원대 오전 9시 30분(군산 야구장)
4월 5일 <2014 하나는행 FA컵 2라운드> 경희대 vs 숭실대 오후 2시(용인 축구센터)

4월 첫째 주(3.31~4.4)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2. 특강
3. 온라인 취업소셜트(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외)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4월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일정
개인상담, 집단상담, On Line Off Line상담

2014년 국제전문여성인턴 선발 공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운영하는 '2014년 국제전문여성인턴'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선발인원 : 총 30명(대학생: 5명, 대학원생: 25명)
2. 지원자격
3. 혜택사항
4. 우대사항
5. 선발방법
6. 선발일정
7. 신청방법
8. 기타